

하나 된 열정, 자원봉사 뚝박질



2019 자원봉사 다짐포럼

- 안부·안전·안심 도민을 위한 자원봉사의 태세 -

(사)원라북도자원봉사센터

목 차

1

일정표

2

「안부 · 안전 · 안심 도민을 위한 자원봉사의 태세」

- 좌 장 : 박 병 기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발 제 : 최 원 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 론 : 박 상 희 (광주광역시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소장)
- 토 론 : 김 소 라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3

종합토론

1

일 정 표

시 간	내 용
13:50~14:00	· 개 회
14:00~16:00	· ‘안부 · 안전 · 안심 도민을 위한 자원봉사의 태세’ - 좌 장 : 박병기(경기대학교 교수) - 발 제 : 최원규(전북대학교 교수) - 토 론 : 박상희(광주광역시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소라(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16:00~16:10	· 나눔약속 퍼포먼스 - 안녕한 전라북도를 위한 나눔약속 카드섹션 퍼포먼스 · 기념촬영
16:10~	· 폐 회

2

「안부 · 안전 · 안심 도민을 위한 자원봉사의 태세」

- 좌 장 : 박 병 기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발 제 : 최 원 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 론 : 박 상 희 (광주광역시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소장)
- 토 론 : 김 소 라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 발 제 >>

안부, 안전, 그리고 안심 전라북도를 위한 자원봉사의 태세

최원규(전북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제1절 서론

안녕(well-being)은 시민 개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상태이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안부 인사말에서 볼 수 있듯, 안녕에는 안전(security)과 안심(relief)의 의미도 담겨있다. 외적 위험요소가 부재한 상태가 안전이고,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안심이다.

최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시작한 ‘안녕 Reaction’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캠페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안녕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고, 전국 곳곳에서 서로 소통하는 자원봉사 캠페인이다. ‘미세먼지 out’, ‘태양광 가로등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외래식물 큰금계국 제거활동’ 등 그 명칭에서 보듯, 다양한 위험이나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융통성이 큰 활동내용을 갖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들 캠페인에서 전국의 기초, 광역 자원봉사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역시 ‘안녕’ 인사 잘하기 캠페인, ‘안녕한 사회를 만듭시다’ 차량스티커 제작 배포, 주요 행사 때 ‘안녕사회 만듭시다’ 카드섹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이 캠페인의 의의를 살린 실효성있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 이 캠페인의 철학적, 이념적 기초가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오늘날 ‘안녕 리액션’ 캠페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캠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안녕’은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시민들의 안녕과 안전과 안심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있는 공공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등의 철학적, 이념적, 실천적 쟁점들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주된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안녕 리액션 홈페이지(<http://v-reaction.net>)를 보면, 3개의 목적(goals; 안부, 안전, 안심), 10개의 타겟이 설정되어 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여성, 자연이 그것들이다. 또한 아젠다로서 빈곤, 환경, 교육, 재난, 폭력, 여가, 공동체, 인권, 평화, 기타(+알파) 등이 열

거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에서 보듯 그 확장성은 매우 크다. 자원봉사의 제반 영역들이 모두 망라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 아무 것이나 이 캠페인의 타겟이지만, 그러나 핵심적 표적, 혹은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안녕!’이란 인사말을 건네는 정도로 캠페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적인 자원봉사 사회운동으로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보다 큰 효과, 혹은 임팩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초점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정작 자원봉사자들이 안녕, 안전 및 안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참여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봉사의지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부터, 이 조사연구에서는 전라북도민의 안녕을 증진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심리적으로 안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캠페인의 실행 주인공인 전북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부, 안전, 안심에 대한 인식과 평가, 안부, 안전 및 안심을 위한 구체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전북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1,101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식(自記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참고로 이 조사에 사용된 주요 척도들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안녕, 안전, 안심 의식과 참여의지 측정을 위한 변수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	측정	비고
일반사항 (10문항)	성별	명목변수	
	연령	연속변수(만 나이)	
	학력	명목변수	
	종교유무	명목변수	
	혼인 상태	명목변수	
	자녀 유무	명목변수	
	직업	명목변수	
	월 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최근 1년 기준)	
	건강 상태	5점 리커트 척도	
	거주지역	명목 변수	

자원봉사 활동 경험 (5문항)	자원봉사활동기간	연속변수(년 단위)	
	월평균 봉사 횟수	연속변수	
	월평균 봉사 시간	연속변수	
	자원 봉사 활동 영역	명목변수	
	자원봉사 참여 동기	명목변수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대한 인식 (25문항)	안녕 리액션 캠페인 인지 여부	명목변수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목적	명목변수	
	안녕 리액션 캠페인 필요도	1문항, 10점 척도	
	안녕 리액션 캠페인 10개 하위 영역에 대한 인지도, 필요도	10문항, 인지도 5점 척도 10문항, 필요도 5점 척도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의향	1문항, 10점 척도	
	전라북도 지역의 안녕, 안전, 안심에 대한 인식	1문항, 10점 척도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경험 (4문항)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여부	명목변수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경로	명목변수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종류	명목변수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지속의지	구혜영(2005)와김제범(2011) 에서 사용한 지속의지 척도	백운옥(2014) 논문 참조 신뢰도 (Cronbach α = .902)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북자원봉사자 대상 조사대상 집단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살펴본다. 제3절 이하에서는 안녕, 안전, 그리고 안심 전라북도를 위한 전북 자원봉사의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을 위한 발전방향들을 논의하고 있다.

제2절 조사대상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일반적 특성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이다. 이 캠페인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조사대상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조사대상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322명인 29.2%, ‘여성’이 779명인 70.8%의 분포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60세 미만’ 이 510명 46.3%, ‘20-40세 미만’ 275명 25.0%, ‘60세 이상’ 18.2%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 527명인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35.9%(395명), ‘중졸’ 8.8%(97명), ‘대학원 졸 이상’ 4.7%(52명), ‘초졸 이하’ 2.7%(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종교 없음’ 이 39.2%(432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7.7%(305명), ‘불교’ 13.8%(152명), ‘천주교’ 10.7%(118명), ‘원불교’ 4.3%(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 ‘유배우(동거 포함)’ 가 66.3%(730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미혼·비혼’ 26.2%(289명), ‘사별’ 4.5%(49명), ‘이혼’ 1.6%(18명), ‘별거’ 1.4%(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41.7%(459명), ‘보통이다’ 39.7%(437명), ‘매우건강하다’ 10.4%(114명),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7.2%(79명), ‘전혀 건강하지 않다’ 1.1%(12명)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은 좋은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55.0%는 시지역에 거주하고 45.0%는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각 지역거주분포는 전주시 거주자가 31.9%(35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창군’ 7.4%(81명), ‘순창군’ 7.0%(77명), ‘군산시’ 6.3%(69명), ‘남원시’ 6.2%(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기술직’ 21.0%(23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 17.5%(193명), ‘가정주부’ 14.6%(161명), ‘자영업’ 12.3%(135명), ‘농업, 어업, 임업’ 10.6%(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50만원 미만’ 이 39.6%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450만원이상’ 26.9%, ‘150-300만원 미만’ 24.5%, ‘150만원 미만’ 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가구 경제 수준은 ‘중’ 65.8%, ‘중상’ 15.2%, ‘중하’ 14.4%의 순의 분포를 보였다.

<표2> 조사대상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322	29.2	거주 지역	전주시	351	31.9
	여자	779	70.8		익산시	22	2.0
	합계	1101	100.0		군산시	69	6.3
연령	20세 미만	116	10.5		정읍시	41	3.7
	20-40세 미만	275	25.0		김제시	55	5.0
	40-60세 미만	510	46.3		남원시	68	6.2
	60세 이상	200	18.2		완주군	63	5.7
	합계	1101	100.0		부안군	56	5.1
	평균(SD)	43.6(16.3)			고창군	81	7.4
	학력	초졸 이하	30		2.7	순창군	77
중졸		97	8.8		임실군	37	3.4
고졸		395	35.9		장수군	68	6.2
대졸		527	47.9		진안군	48	4.4

	대학원 졸 이상	52	4.7		무주군	42	3.8	
	합계	1101	100.0		기타	23	2.1	
종교	기독교	305	27.7	직업	합계	1101	100.0	
	천주교	118	10.7		농업, 어업, 임업	117	10.6	
	불교	152	13.8		자영업	135	12.3	
	원불교	47	4.3		판매/서비스	53	4.8	
	없음	432	39.2		기능/숙련공	15	1.4	
	기타	47	4.3		일반작업직	34	3.1	
	합계	1101	100.0		사무/기술직	231	21.0	
	혼인 상태	미혼·비혼	289		26.2	경영/관리직	18	1.6
유배우(동거포함)		730	66.3		전문/자유직	39	3.5	
별거		15	1.4		가정주부	161	14.6	
이혼		18	1.6		학생	193	17.5	
사별		49	4.5		무직	80	7.3	
합계		1101	100.0		기타	25	2.3	
자녀 유무		없음	317		28.8	합계	1101	100.0
	있음	784	71.2		가구경 제수준	상	15	1.4
	합계	1101	100.0			중상	167	15.2
건강 상태	전혀 건강 안함	12	1.1	중		724	65.8	
	건강하지 않은 편	79	7.2	중하		158	14.4	
	보통	437	39.7	하		37	3.4	
	건강한 편	459	41.7	합계		1101	100.0	
	매우 건강	114	10.4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84	9.0	
	합계	1101	100.0		150-300만원 미만	228	24.5	
	평균(SD)	3.5(.8)			300-450만원 미만	369	39.6	
시군 분포	시지역	606	55.0		450만원 이상	251	26.9	
	군지역	495	45.0		합계	932	100.0	
	합계	1101	100.0	평균(SD)	356(1935.0)			

2.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기간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참여 기간은 최소 1년에서 47년까지의 넓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평균적으로 8년 정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2018년 8월 ~2019년 7월) 총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2300시간까지 개인 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지난 1년 동안의 1인 평균 총 봉사시간은 8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인당 연평균 35.2시간에 비해 비교적 연간 총 활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회당 평균 활동시간은 3시간으로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의 3.4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3년 이하가 30.0%(310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4년-6년 22.0%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지난 1년 동안 총 봉사시간은 10-50시간 미만이 44.9%(373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월평균 봉사횟수는 1회 이하가 41.4%(381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1회 평균 봉사시간은 2시간 이하가 61.7%(568명)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표3〉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기간

구분		빈도(명)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합계	최소	최대
참여 기간	3년 이하	310	30.0	8.23	7.0	8,509	1	47
	4년-6년	227	22.0					
	7년-9년	113	10.9					
	10년-12년	182	17.6					
	13년 이상	202	19.5					
	합계	1034	100.0					
총 봉사 시간 (년간)	10시간 미만	82	9.9	83.79	151.4	69,630	1	2300
	10-50시간 미만	373	44.9					
	50-100시간 미만	179	21.5					
	100시간 이상	197	23.7					
	합계	831	100.0					
월평균 봉사 횟수	1회	381	41.4	3.05	3.0	2,738	1	24
	2회	187	20.3					
	3회	99	10.8					
	4회	86	9.3					
	5-10회	146	15.9					
	11회 이상	21	2.3					
	합계	920	100.0					
1회 평균 봉사 시간	2시간 이하	423	45.7	2.98	1.7	2,822	1	12
	3시간	169	18.3					
	4시간 이상	334	36.1					
	합계	926	100.0					

※ 참여 기간, 시간 측정을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개월’에 대한 응답 사항은 6개월 단위로 반올림 또는 반내림하여 코딩하였음.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집단별 자원봉사 참여기간, 횟수, 시간을 비교하여 본 결과는 〈표4와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본 평균 참여 기간, 횟수, 시간은 남성이 참여 기간과 1회 평균 시간이 여성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년 총 봉사시간은 ‘여성’이 87시간 ‘남성’ 70시간보다 17시간 이상 차이를 보여 봉사시간에 성별 간 큰 격차를 나타냈다. 월평균 봉사횟수는 ‘여성’이 3회로 남성의 ‘2.8’ 회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자원봉사 총 참여 기간($F=37.040^{***}$), 연간 총 봉사시간($F=7.914^{***}$), 월 평균 봉사 횟수($F=10.539^{***}$), 1회 평균 봉사시간($F=4.76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총 참여 기간 12년, 지난 1년 동안 총 봉사시간 131시간, 월 평균 횟수 4회로 모두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 흥미롭다. 1회 평균 봉사시간은 ‘20-40세 미만’에서 3.4시간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총 참여기간, 봉사시간, 1회 평균 시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월평균 봉사 횟수($F=3.152^*$)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대학원 졸 이상’ 보다 ‘고졸’의 학력에서 월평균 봉사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평생 참여 기간 10.5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의 학력이 총 봉사시간 99시간, 월평균 봉사횟수 3.4회, 1회 평균 봉사시간 3.2 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표4> 집단별 자원봉사 시간과 기간

구분		총(년) 참여 기간 M(SD)	t/F	총 봉사 시간(년간)	t/F	월 평균 횟수	t/F	1회 평균 시간	t/F
성 별	남자	8.27(7.66)	.102	70.08(116.87)	-1.715	2.84(3.30)	-.854	3.12(1.91)	.867
	여자	8.21(6.79)		89.69(163.72)		3.08(2.80)		3.02(1.66)	
연 령	20세 미만 ^a	4.24(2.75)	37.040 *** a<b<c<d	45.92(65.29)	7.914 *** a,b,c<d	2.28(2.31)	10.539 *** a,b,c<d	2.95(1.56)	4.764 ** b>c
	20-40세 미만 ^b	6.55(5.16)		66.22(111.48)		2.48(2.62)		3.37(2.09)	
	40-60세 미만 ^c	8.54(6.85)		83.88(127.89)		2.99(2.90)		2.86(1.55)	
	60세 이상 ^d	11.90(9.23)		131.07(251.22)		3.97(3.54)		3.21(1.77)	
학 력	초졸 이하 ^a	9.78(11.19)	1.848	74.08(125.87)	1.218	3.19(2.56)	3.152* c>d	2.30(.95)	2.163
	중졸 ^b	8.26(7.80)		84.88(154.93)		3.12(2.88)		2.86(1.26)	
	고졸 ^c	8.22(6.50)		98.47(183.40)		3.38(3.22)		3.15(1.67)	
	대졸 ^d	7.92(6.91)		73.10(126.40)		2.66(2.81)		3.08(1.91)	
	대학원 졸 이상 ^e	10.48(7.78)		80.59(107.60)		2.53(2.19)		2.77(1.49)	
가 구 소 득	150만원 미만 ^a	11.05(8.95)	3.081* a>c	93.95(131.51)	.704	3.90(2.93)	2.565	3.24(1.52)	.505
	150-300만원 미만 ^b	8.88(7.71)		84.40(192.93)		2.83(2.85)		2.96(1.86)	
	300-450만원 미만 ^c	8.26(6.83)		83.72(136.65)		3.22(3.39)		3.03(1.67)	
	450만원 이상 ^d	8.84(7.05)		103.94(169.99)		2.90(2.81)		3.00(1.66)	
직 업	농업, 어업, 임업 ^a	9.14(7.58)	4.704 *** a,b,l>j	90.08(153.24)	3.417 *** j>f	3.01(2.98)	6.536 *** b,c,j,k>f	2.83(1.30)	2.451 ** c<j
	자영업 ^b	9.37(7.59)		85.01(137.96)		3.45(3.28)		3.17(1.89)	
	판매/서비스 ^c	8.22(5.88)		90.55(111.33)		4.34(3.88)		3.15(1.77)	
	기능/숙련공 ^d	8.93(6.22)		58.55(56.90)		2.25(1.61)		3.42(1.62)	
	일반작업직 ^e	9.56(8.64)		93.75(199.92)		2.93(2.49)		3.04(2.06)	
	사무/기술직 ^f	7.87(6.82)		55.46(96.84)		1.89(1.87)		2.66(1.65)	
	경영/관리직 ^g	8.06(6.34)		127.36(141.24)		2.69(1.85)		3.94(2.41)	
	전문/자유직 ^h	9.00(8.77)		61.83(81.31)		2.76(2.57)		2.71(1.05)	
	가정주부 ⁱ	9.99(8.05)		145.98(258.61)		3.79(3.48)		3.21(1.62)	
	학생	5.18(4.26)		52.63(69.77)		2.40(2.21)		3.40(1.98)	
	무직 ^k	8.61(6.84)		103.47(169.73)		4.20(3.90)		2.97(1.53)	

	기타	8.00(6.02)		81.28(103.84)		3.33(2.91)		2.67(1.75)	
지 역	시	8.64(7.04)	2.056*	106.55(184.82)	4.520***	3.50(3.22)	5.723***	3.39(1.87)	6.460***
	군	7.74(7.03)		59.61(99.39)		2.40(2.51)		2.66(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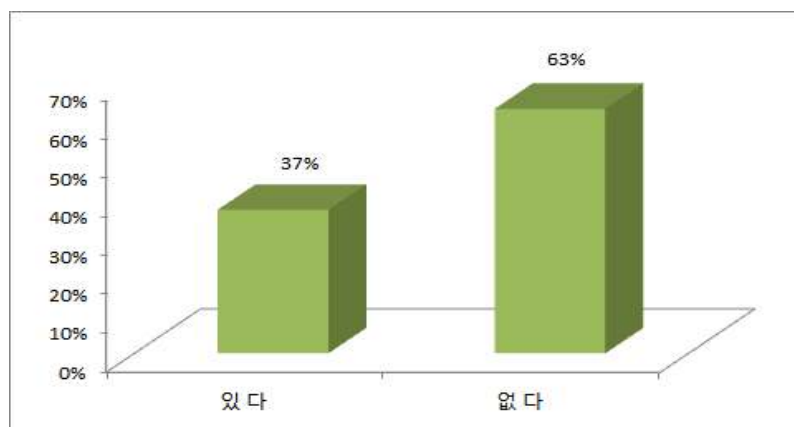
가구소득별로는 총 참여기간($F=3.08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서 총 참여기간 11년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서 월평균 봉사횟수 4회, 1회 평균 봉사시간 3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년 동안 총 봉사시간은 ‘450만원 이상’의 소득에서 104시간으로 다른 소득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직업별로는 총 참여기간($F=4.704^{***}$), 총 봉사시간($F=3.417^{***}$), 월평균 횟수($F=6.536^{***}$), 1회 평균 봉사시간($F=2.45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다. ‘가정주부’ 집단에서 총 참여기간 10년, 연간 총 봉사시간 146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자원봉사 횟수는 ‘판매/서비스직’에서 4.3회로 가장 많았으며 1회 봉사시간은 ‘경영/관리직’에서 4시간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참여 기간($t=2.056^*$), 총 봉사시간($t=4.520^{***}$), 월평균 횟수($t=5.723^{***}$), 1회 평균 시간($t=6.460^{***}$)의 항목 모두에서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4〉 참고).

3. 전문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문제를 구조적 또는 제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사회개혁운동은 아니더라도 ‘사회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사회발달,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는 자원봉사활동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전문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역시 전문화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온존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전문자원봉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문자원봉사 경험한 적이 ‘있다’ 407명 37.0%이며 전문자원봉사 경험이 ‘없다’ 694명 63.0%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문자원봉사 참여비율은 전국 30.3%(통계청 사회조사, 201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전문자원봉사 경험 여부

전문자원봉사 경험	빈도(명)	퍼센트(%)
있 다	407	37.0
없 다	694	63.0
합 계	1101	100.0



[그림1] 전문자원봉사 경험 여부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전문자원봉사 유형은 아동학습지도가 19.4%로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미용 17.4%, 요리 17.2%, 의료 12.3%, 공연 10.6%, 평생학습 관련 8.8%, 통역 및 번역 2.0%, 전문 상담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6> 전문자원봉사 유형

전문 자원봉사 유형	빈도(명)	퍼센트(%)	순위
이,미용	71	17.4	2
요리	70	17.2	3
의료	50	12.3	4
아동학습지도(방과후 교실 등)	79	19.4	1
통역 및 번역	8	2.0	9
공연(악기연주, 춤, 연극 등)	43	10.6	5
평생학습 관련(컴퓨터, 한글, 악기 등)	36	8.8	6
전문 상담(법률, 세무 등)	4	1.0	10
운전(장애인 이동 지원, 구호 물품 배달 등)	25	6.1	7
주택 수리(보일러, 도배 등) 및 기타 유지 보수	21	5.2	8
합계	407	100.0	

4. 자원봉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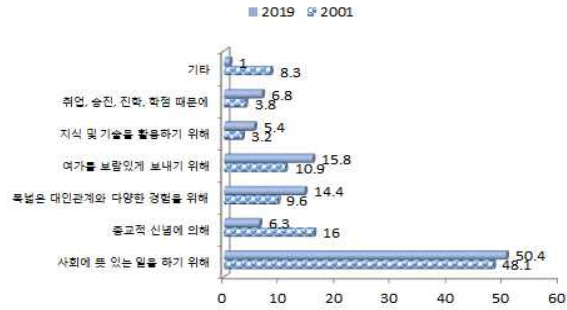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참여 동기를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 동기 1순위로는 ‘사회에 뜻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15.8%,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14.4% 순으로 나타났다(〈표7〉 참조). 자원봉ساد동기 2순위, 3순위에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가 30.1%, 27.1%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사회에 뜻 있는 일을 하기 위해’ 29.1%,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23.%,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로 여전히 이타적 동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의 이기적 동기도 중요한 동기로 나타나고 있어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참여 동기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7〉 자원봉사 동기

자원봉사 동기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이타적 동기	사회에 뜻 있는 일을 하기 위해	555	50.4	191	18.9	147	15.3	893	29.1
	종교적 신념에 의해	69	6.3	99	9.8	56	5.8	224	7.3
이기적 동기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158	14.4	304	30.1	261	27.1	723	23.5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174	15.8	273	27.0	251	26.1	698	22.7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59	5.4	92	9.1	155	16.1	306	10.0
	취업, 승진, 진학, 학점 때문에	75	6.8	47	4.7	62	6.4	184	6.0
기 타		11	1.0	4	.4	30	3.1	45	1.5
합계		1101	100.0	1010	100.0	962	100.0	3073	100.0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참여 동기에 대해서 2001년 전주시 자원봉사실태 조사¹⁾와 시계열 비교를 한 결과 ‘사회에 뜻 있는 일을 하기 위해’의 이타적 동기가 2001년과 2019년 가장 중요한 동기로 제시되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이타적 동기는 16% → 6.3%로 감소한 반면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10.9% → 15.8%, ‘폭넓은 대인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9.6% → 14.4%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에서 이타적 동기가 시간의 흐름을 경과하여도 자원봉사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를 위한 이기적 동기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1)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시 자원봉사실태조사], 2001.



[그림2] 2001, 2019년의 자원봉사동기 1순위의 시계열 비교

5. 자원봉사 활동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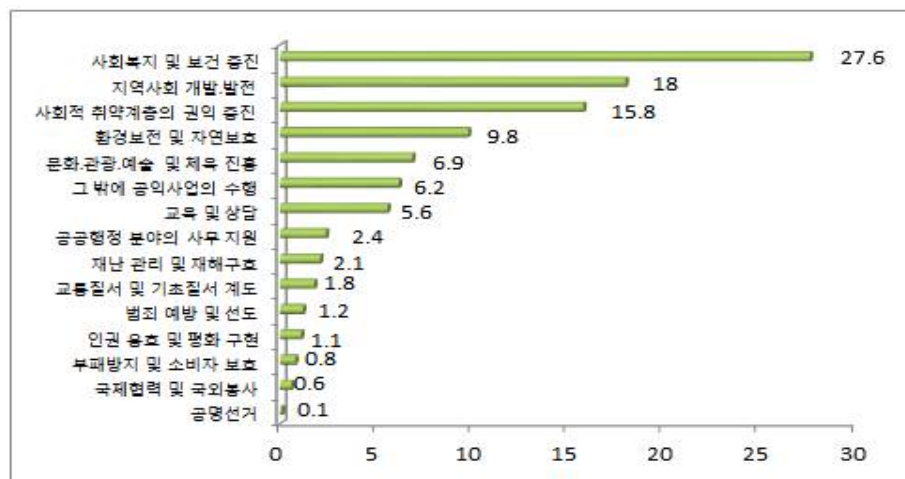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열거된 자원봉사 활동영역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질문한 결과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7.6%,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18.0%,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9.8%,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9.8%,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는 사회문제를 시민의 자발적 의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문제가 다양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영역인 사회복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영역에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조사에서 나타난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영역은 전통적인 자원봉사 영역인 사회복지 및 사회취약계층 등으로 자원봉사의 범위가 여전히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추후 사회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표8> 자원봉사참여 영역

자원봉사참여 영역	빈도(명)	퍼센트(%)	순위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304	27.6	1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198	18.0	2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108	9.8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174	15.8	3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2	5.6	7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12	1.1	12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3	1.2	11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0	1.8	10

재난 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23	2.1	9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76	6.9	5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9	.8	13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	.1	15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7	.6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26	2.4	8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68	6.2	6
합계	11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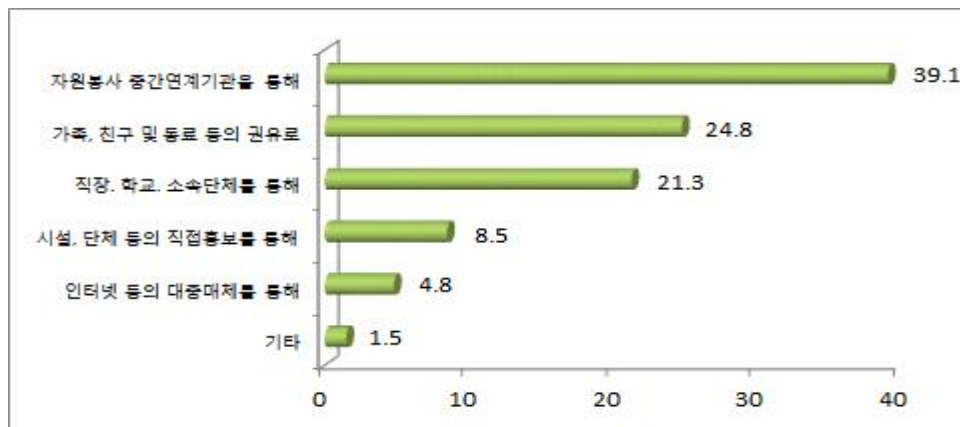
[그림3] 자원봉사 영역

6. 자원봉사참여 경로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 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자원봉사 중간 연계 기관을 통해서’가 3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 24.8%, ‘직장, 학교, 소속단체(종교단체)를 통해’ 21.3%, ‘시설, 단체 등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8.5%,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4.8%,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표9〉 참조).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경로는 중간연계기관 39.1%, 소속단체를 통해 21.3%로 60% 이상이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자원봉사참여 동기가 주로 소속 집단 내의 사회적 의무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자원봉사 중간연계기관을 통한 자원봉사참여가 2017년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의 자원봉사센터 6.2%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자원봉사 중간연계기관의 활발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표9> 자원봉사참여 경로

자원봉사 참여 경로	빈도(명)	퍼센트(%)	순위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53	4.8	5
직장, 학교, 소속단체(종교단체)를 통해	234	21.3	3
시설, 단체 등의 직접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94	8.5	4
가족,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	273	24.8	2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자원봉사 중간 연계 기관을 통해	430	39.1	1
기타	17	1.5	6
합계	1101	100.0	



[그림4] 자원봉사참여 경로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연령별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chi^2=102.221^{**}$). ‘2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가족,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가 41.4%로 가장 높은 참여 경로를 나타냈다. ‘20-4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소속단체를 통해서’가 34.2%로 가장 많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6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자원봉사중간연계기관’을 통해서가 각각 42.5%, 52.0%의 분포를 나타냈다. 60세 이상이 자원봉사 중간연계기관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17.9%(통계청 사회조사, 2015)보다 높다. 즉 학교, 직장에서의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노인세대는 보다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성향을 가졌으며 자원봉사연계기관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 미만에서는 대인접촉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 중간연계기관은 향후 20세 미만의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자원봉사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10〉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경로

구분		참여경로						전체
		대중매체를 통해	소속단체를 통해	시설, 단체 등의 직접홍보를 통해	가족,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	자원봉사 중간 연계 기관을 통해	기타	
연령	20세 미만	4(3.4)	37(31.9)	5(4.3)	48(41.4)	20(17.2)	2(1.7)	116(100.0)
	20-40세 미만	14(5.1)	94(34.2)	23(8.4)	49(17.8)	89(32.4)	6(2.2)	275(100.0)
	40-60세 미만	31(6.1)	72(14.1)	54(10.6)	129(25.3)	217(42.5)	7(1.4)	510(100.0)
	60세 이상	4(2.0)	31(15.5)	12(6.0)	47(23.5)	104(52.0)	2(1.0)	200(100.0)
전체		53(4.8)	234(21.3)	94(8.5)	273(24.8)	430(39.1)	17(1.5)	1101(100.0)
χ^2		102.221***						

7. 자원봉사활동 지속 의지, 권유 의지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의지 및 권유의지를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 의지는 10점 만점 중 평균 8.3(SD=1.9)이며 권유 의지는 10점 만점 중 8.0(SD=2.0)점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집단별 자원봉사의 지속의지 및 권유의지를 비교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 집단에서 지속 의지 및 권유 의지가 8.4점, 8.0점으로 ‘남성’ 집단 8.1점, 7.9보다 높았다. 연령 집단 비교에서는 지속의지($F=13.985^{***}$), 권유의지($F=7.51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높은 연령 집단에서 지속의지와 권유의지가 더 높았다. 교육수준별 비교에서 지속의지는 ‘대학원 졸 이상’의 학력에서 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권유의지는 ‘초졸 이하’의 학력에서 8.6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별로는 ‘45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 지속의지($F=3.027^*$) 및 권유 의지($F=3.531^*$)가 각각 8.7점, 8.4점으로 저소득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별 집단 비교에서 지속의지($F=2.920^{**}$)와 권유의지($F=2.33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주부’와 ‘무직’ 집단에서 지속의지 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권유의지는 ‘가정주부’ 집단에서 8.4점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군지역 거주 집단이 지속의지($t=-2.140^*$), 권유의지($t=-2.082^*$)가 시 지역 거주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1〉 참고).

<표11> 집단별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 권유의지 비교

구분		지속 의지			권유 의지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8.12	1.895	-1.841	7.86	1.878	-.982
	여자	8.35	1.954		7.99	2.052	
연령	20세 미만 ^a	8.28	1.754	13.985*** b<a,c,d	7.89	1.869	7.516*** b<c,d
	20 – 40세 미만 ^b	7.66	1.879		7.48	1.888	
	40 – 60세 미만 ^c	8.50	1.927		8.10	2.032	
	60세 이상 ^d	8.61	1.969		8.25	2.058	
학력	초졸 이하	8.10	2.249	1.895	8.57	2.012	1.143
	중졸	8.31	1.911		8.02	1.898	
	고졸	8.46	1.880		7.98	2.106	
	대졸	8.14	1.961		7.86	1.944	
	대학원 졸 이상	8.56	1.955		8.13	1.951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a	8.36	2.121	3.027* b<c	7.76	2.237	3.531* b<c
	150 – 300만원 미만 ^b	8.13	2.096		7.84	2.112	
	300 – 450만원 미만 ^c	8.29	1.908		7.92	2.028	
	450만원 이상 ^d	8.65	1.826		8.35	1.856	
직업	농업, 어업, 임업 ^a	8.53	1.941	2.920** f, j<i	8.08	2.213	2.330** f<i
	자영업 ^b	8.57	1.851		8.33	1.889	
	판매/서비스 ^c	7.72	2.013		7.58	2.004	
	기능/숙련공 ^d	8.07	2.052		7.80	1.699	
	일반작업직 ^e	8.06	2.373		7.47	2.501	
	사무/기술직 ^f	8.03	1.924		7.69	1.973	
	경영/관리직 ^g	8.17	2.431		8.06	2.209	
	전문/자유직 ^h	7.87	2.273		7.64	2.071	
	가정주부 ⁱ	8.72	1.918		8.36	1.954	
	학생 ^j	8.03	1.744		7.79	1.800	
	무직 ^k	8.73	1.669		8.20	1.865	
	기타 ^l	8.08	2.272		7.40	2.566	
거주 지역	시	8.17	2.021	-2.140*	7.84	2.068	-2.082*
	군	8.42	1.826		8.09	1.913	
전체		8.29	1.939		7.95	2.003	

8.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21개 항목,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나타난 21개 항목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표12> 참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의 항목에서 4.0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자원봉사활동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다’ 항목에서 3.24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표1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새로운 경험 내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14 (1.3)	10 (.9)	223 (20.3)	572 (52.0)	282 (25.6)	4.00 (.78)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1 (1.0)	18 (1.6)	187 (17.0)	572 (52.0)	313 (28.4)	4.05 (.78)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0 (.9)	23 (2.1)	218 (19.8)	556 (50.5)	294 (26.7)	4.00 (.79)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	8 (.7)	32 (2.9)	335 (30.4)	491 (44.6)	235 (21.3)	3.83 (.82)
활동 대상자와 기관의 직원들은 나의 활동에 대해 고마워했다	10 (.9)	30 (2.7)	227 (20.6)	526 (47.8)	308 (28.0)	3.99 (.82)
그동안 수행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언젠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4 (2.2)	161 (14.6)	359 (32.6)	400 (36.3)	157 (14.3)	3.46 (.98)
내가 자원봉사에 투입한 노력으로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12 (1.1)	58 (5.3)	330 (30.0)	493 (44.8)	208 (18.9)	3.75 (.86)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 (.7)	34 (3.1)	258 (23.4)	510 (46.3)	291 (26.4)	3.95 (.83)
지역사회 및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여 . 내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7 (.6)	58 (5.3)	274 (24.9)	510 (46.3)	252 (22.9)	3.86 (.85)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0 (.9)	28 (2.5)	231 (21.0)	548 (49.8)	284 (25.8)	3.97 (.81)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자원봉사를 인정하여 주었다	10 (.9)	29 (2.6)	265 (24.1)	542 (49.2)	255 (23.2)	3.91 (.81)
내가 수행한 자원봉사 업무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11 (1.0)	35 (3.2)	281 (25.5)	556 (50.5)	218 (19.8)	3.85 (.81)
내가 하는 선행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32 (2.9)	141 (12.8)	374 (34.0)	392 (35.6)	162 (14.7)	3.46 (.99)
내가 맡은 자원봉사 업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9 (.8)	57 (5.2)	348 (31.6)	491 (44.6)	196 (17.8)	3.73 (.84)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16 (1.5)	62 (5.6)	325 (29.5)	480 (43.6)	218 (19.8)	3.75 (.89)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6 (1.5)	62 (5.6)	325 (29.5)	480 (43.6)	218 (19.8)	3.74 (.86)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9 (.8)	26 (2.4)	263 (23.9)	523 (47.5)	280 (25.4)	3.94 (.82)
나의 노력으로 다른 자원봉사활동 대상자나 기관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12 (1.1)	29 (2.6)	329 (29.9)	526 (47.8)	205 (18.6)	3.80 (.81)
내가 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다	13 (1.2)	45 (4.1)	317 (28.8)	535 (48.6)	191 (17.3)	3.77 (.82)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다	64 (5.8)	190 (17.3)	388 (35.2)	332 (30.2)	127 (11.5)	3.24 (1.05)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15 (1.4)	20 (1.8)	237 (21.5)	497 (45.1)	332 (30.2)	4.01 (.84)

다음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이다.(〈표13〉 참고). 성별, 학력, 가구소득, 직업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연령 집단 ($F=5.958^*$)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후 검증결과 60세 이상의 집단에서 자원 봉사 활동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3>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집단별 비교

구 분		평균(M)	표준편차(SD)	t/F
성별	남자	3.8172	.57793	.161
	여자	3.8109	.62933	
연령	20세 미만 ^a	4.0140	.62458	5.958*** b,c,d<a
	20 – 40세 미만 ^b	3.7482	.55882	
	40 – 60세 미만 ^c	3.8255	.60260	
	60세 이상 ^d	3.7521	.68523	
학력	초졸 이하	3.6270	.60040	.950
	중졸	3.8630	.62950	
	고졸	3.8256	.63269	
	대졸	3.8083	.59509	
	대학원 졸 이상	3.7738	.64820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6927	.55219	1.852
	150-300만원 미만	3.7655	.60351	
	300-450만원 미만	3.8071	.59705	
	450만원 이상	3.8577	.66422	
직업	농업, 어업, 임업	3.8262	.66594	1.731
	자영업	3.8744	.59504	
	판매/서비스	3.6712	.57956	
	기능/숙련공	3.8317	.45882	
	일반작업직	3.6681	.75215	
	사무/기술직	3.7586	.59450	
	경영/관리직	3.7619	.70970	
	전문/자유직	3.7875	.67298	
	가정주부	3.7909	.65057	
	학생	3.9428	.58856	
	무직	3.8042	.53398	
	기타	3.6419	.51748	
지역	시	3.7933	.60391	-1.159
	군	3.8366	.62699	
전체		3.8127	.61449	

자원봉사활동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유인하고 그들에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는 노력봉사 성격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전문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성취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전문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사람들을 자원봉사에 유입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전문자원봉사 경험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문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평균 점수 3.9점으로 전문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 3.8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2.359^*$). 이를 통해 전문자원봉사 경험이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14> 참고).

<표14> 전문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

전문봉사 유무	평균	표준편차	t/F
있다	3.8697	.57314	2.359*
없다	3.7793	.63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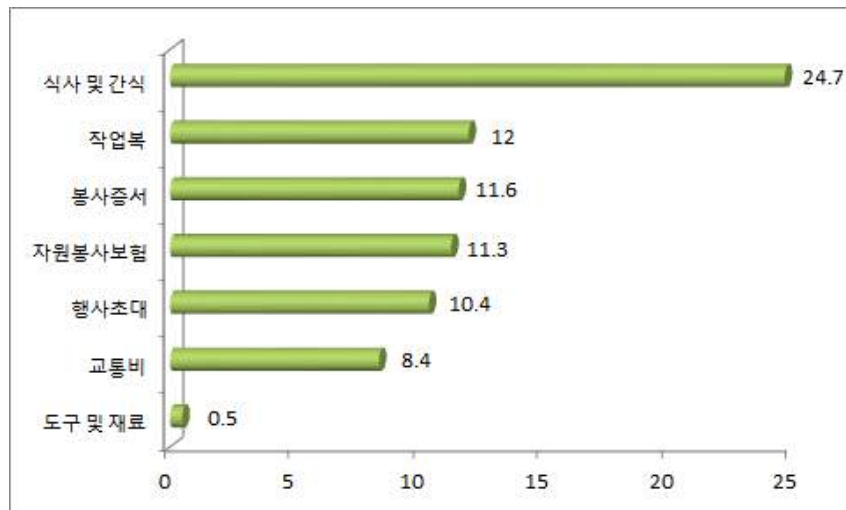
9.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실제로 전국의 자원봉사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정과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인정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했다. 자원봉사자 인정에 관한 기초 자료의 확보 차원에서 자원봉사실태뿐 아니라 다양한 인정 방안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국민의 의식을 수렴해 자원봉사 진흥정책에 반영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식사 및 간식’ 24.7%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복’ 12.0%, ‘자원봉사보험’ 11.3%, ‘행사초대’ 10.4%, ‘교통비’ 8.4%, ‘도구 및 재료’ 0.5% 순으로 나타났다. ‘식사 및 간식’, ‘작업복 제공’ 등의 물질적 보상이 1, 2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보험’과 ‘봉사증서’ 등의 비물질적 보상 등도 상당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5> 자원봉사자의 인정과 보상(복수응답)

인정 보상	빈도(명)	퍼센트(%)	순위
교통비	266	8.4	6
자원봉사보험	356	11.3	4
작업복	381	12.0	2
도구 및 재료	15	0.5	7
식사 및 간식	781	24.7	1
행사초대	330	10.4	5
봉사증서	368	11.6	3
합계	3162	100.0	



[그림5]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9. 과거 자원봉사 경험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과거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총 7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16〉 참조).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과거 경험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은 41.1%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종교활동은 45.5%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가족의 자원 봉사 경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모님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36.9%이며 부모님의 자선, 기부 활동을 본 응답자는 47.0%이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개인 경험에서 헌혈 경험은 54.1%가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어린시절부터 사회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60.7%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과거 경험 중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경험은 33.7%의 빈도를 나타내 자원봉사와 관련된 경험 중 가장 낮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16> 자원봉사 과거경험

구분		모르겠다	아니다	그렇다	전체
단체 경험	청소년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145(13.2)	504(45.8)	452(41.1)	1,101(100.0)
	종교활동에 참여했다	110(10.0)	490(44.5)	501(45.5)	1,101(100.0)
가족 경험	부모님이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23(20.3)	472(42.9)	406(36.9)	1,101(100.0)
	부모님이 자선이나 기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12(19.3)	372(33.8)	517(47.0)	1,101(100.0)
개인 경험	헌혈 경험이 있다	108(9.8)	397(36.1)	596(54.1)	1,101(100.0)
	어린시절부터 사회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26(20.5)	207(18.8)	668(60.7)	1,101(100.0)
	어린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144(13.1)	586(53.2)	371(33.7)	1,101(100.0)

10. 전라북도 자원봉사 현황

전라북도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7개 항목으로 질문하였다.<표17> 참고). ‘자원봉사는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중요한 시민 활동이다’에 ‘적극 긍정’이 40.3%로 7개 항목 중 가장 높았으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주민생활이 나아질 것이다’에 ‘적극 긍정’은 30.8%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시, 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잘하고 있다’에 ‘적극 긍정’은 20.8%로 7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지역 내 자원봉사 단체들 간에 협력이 잘되고 있다’ 항목에 대해서도 ‘적극 긍정’ 21.2%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동은 향후 민관협력과 자원봉사 단체 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17>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평가

항 목	적극 부정 (1)	부정 (2)	중립 (3)	동의 (4)	적극 긍정 (5)	M(SD)
우리 자치단체(시, 군)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다	6 (.5)	45 (4.1)	377 (34.2)	410 (37.2)	263 (23.9)	3.80 (.868)
우리 자치단체장(시장, 군수)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5 (.5)	54 (4.9)	391 (35.5)	387 (35.1)	264 (24.0)	3.77 (.884)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시, 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잘하고 있다	2 (.2)	36 (3.3)	392 (35.6)	442 (40.1)	229 (20.8)	3.78 (.815)
지역 내 자원봉사 단체들 간에 협력이 잘되고 있다	3 (.3)	29 (2.6)	409 (37.1)	427 (38.8)	233 (21.2)	3.78 (.815)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자치단체(시, 군) 자랑거리의 하나이다	9 (.8)	54 (4.9)	393 (35.7)	386 (35.1)	259 (23.5)	3.76 (.896)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주민생활이 나아질 것이다	1 (.1)	21 (1.9)	291 (26.4)	449 (40.8)	339 (30.8)	4.00 (.811)
자원봉사는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중요한 시민 활동이다	2 (.2)	10 (.9)	237 (21.5)	408 (37.1)	444 (40.3)	4.16 (.803)

제 3 절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안녕’ , ‘안전’ , ‘안심’ 의식

1.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안녕(삶의 만족도)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안녕(삶의 만족도)에 관하여 다섯 문항,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전체 안녕(삶의 만족도)는 7점 만점 중 4.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표18>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안녕(삶의 만족도)

항 목	전혀 아니다 (1)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3)	중간 이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8)	M (SD)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11 (1.0)	46 (4.2)	65 (5.9)	311 (28.2)	234 (21.3)	346 (31.4)	88 (8.0)	4.91 (1.30)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4 (0.4)	32 (2.9)	78 (7.1)	323 (29.3)	243 (22.1)	325 (29.5)	96 (8.7)	4.93 (1.24)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6 (0.5)	26 (2.4)	51 (4.6)	264 (24.0)	234 (21.3)	371 (33.7)	149 (13.5)	5.18 (1.25)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8 (0.7)	44 (4.0)	90 (8.2)	276 (25.1)	290 (26.3)	308 (28.0)	85 (7.7)	4.87 (1.28)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53 (4.8)	135 (12.3)	113 (10.3)	233 (21.2)	189 (17.2)	251 (22.8)	127 (11.5)	4.48 (1.71)

<표19> 집단별 안녕(삶의 만족도)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4.9540	1.06587	1.528
	여자	4.8426	1.17949	
연령	20세 미만 ^a	4.8793	1.11398	9.611*** b<c,d
	20 - 40세 미만 ^b	4.5956	1.18321	
	40 - 60세 미만 ^c	4.9188	1.11953	
	60세 이상 ^d	5.1460	1.11737	
학력	초졸 이하	4.8667	1.25762	.657
	중졸	4.9196	1.04230	
	고졸	4.8846	1.15536	
	대졸	4.8387	1.15789	
	대학원 졸 이상	5.0962	1.12963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a	4.8548	1.28658	3.176* c<d
	150-300만원 미만 ^b	4.8193	1.18967	

	300-450만원 미만 ^c	4.8136	1.09739	
	450만원 이상 ^d	5.0789	1.09821	
직업	농업, 어업, 임업 ^a	5.0000	1.18961	2.368** l<f
	자영업 ^b	5.0385	1.07994	
	판매/서비스 ^c	4.7774	1.10569	
	기능/숙련공 ^d	5.2267	1.32636	
	일반작업직 ^e	4.7471	1.16859	
	사무/기술직 ^f	4.6225	1.13529	
	경영/관리직 ^g	4.9556	1.22052	
	전문/자유직 ^h	4.8359	1.20164	
	가정주부 ⁱ	5.0758	1.08557	
	학생 ^j	4.7876	1.12187	
	무직 ^k	5.0450	1.27923	
	기타 ^l	4.7600	1.04403	
지역	시 군	4.9188	1.17737	1.403
		4.8218	1.10999	
전체		4.8752	1.14806	

2.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주관적 안녕감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서 행복감, 걱정 정도, 우울감, 삶의 만족, 일 가치감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10점 척도, 각 1문항,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5개 항목의 평균 점수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행복감은 10점 만점 중 7.11점, 걱정 정도는 10점 만점 중 5.26점, 우울감은 10점 만점 중 4.19점, 삶의 만족은 10점 만점 중 6.90점, 일 가치감은 10점 만점 중 7.14점을 나타냈다.

3.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에 대한 인식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개까지 고를 수 있도록 해서 그 합계를 낸 결과는 아래 표의 오른쪽 칼럼과 같다. 표에서 보듯,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등)’ 18.2%, ‘국가안보(전쟁, 테러, 북핵 문제 등)’ 13.9%, ‘범죄 발생(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13.8%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13.2%,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10.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0>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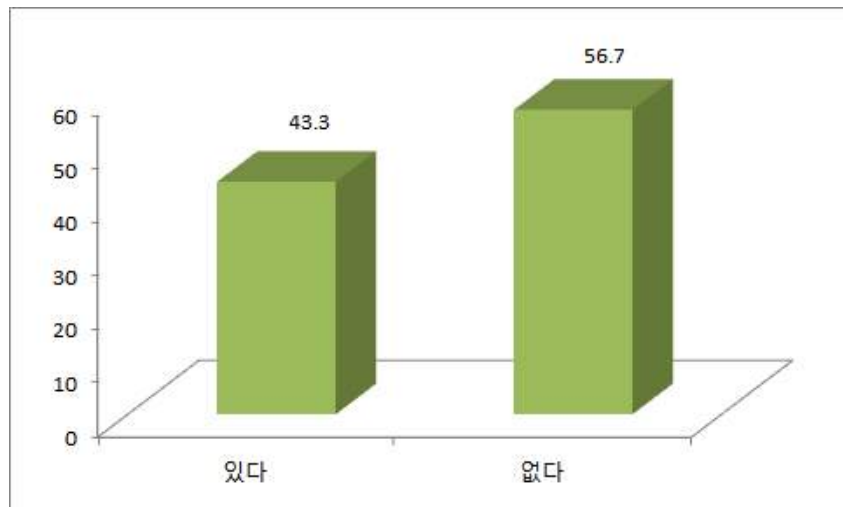
불안 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국가안보(전쟁, 테러, 북핵 문제 등)	266	24.2	87	7.9	107	9.7	460	13.9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78	7.1	162	14.7	103	9.4	343	10.4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등)	238	21.6	207	18.8	157	14.3	602	18.2
인재(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75	6.8	91	8.3	86	7.8	252	7.6
경제적 위험(기업 파산, 실업 등)	104	9.4	135	12.3	103	9.4	342	10.4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134	12.2	148	13.4	153	13.9	435	13.2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12	1.1	48	4.4	56	5.1	116	3.5
범죄 발생(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124	11.3	147	13.4	184	16.7	455	13.8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57	5.2	76	6.9	148	13.4	281	8.5
기타	13	1.2	-	-	4	.4	17	0.5
합계	1101	100.0	1101	100.0	1101	100.0	3303	100.0

4. 야간에 집 근처에서 단독 보행 시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두려움이 ‘있다’ 477명 43.3%, ‘없다’ 624명 ‘56.7’ %로 응답자의 절반이 야간에 집 근처에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10명 중 4~5명은 야간 집 근처 안전에 대하여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21>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

두려움 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477	43.3
없다	624	56.7
합계	1101	100.0



[그림6] 야간 두려움 인지 여부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집단별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있어서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47.1%, 남성은 34.2%로 두려움이 있음을 표출하여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약 13%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chi^2 = 15.561^{***}$). 연령 집단에서는 20세 미만에서 52.6%의 두려움을 표출하여 다른 연령 집단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chi^2 = 20.463^{***}$).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집단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경영/관리직에서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다’ 61.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chi^2 = 23.107^*$). 이상과 같은 집단별 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과 20세 미만의 청소년, 경영/관리직 집단에서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2> 집단별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

구분		두려움 유무		계	χ^2
		있다	없다		
성별	남자	110(34.2)	212(65.8)	322(100.0)	15.561 ^{***}
	여자	367(47.1)	412(52.9)	779(100.0)	
연령	20세 미만	61(52.6)	55(47.4)	116(100.0)	20.463 ^{***}
	20-40세 미만	130(47.3)	145(52.7)	275(100.0)	
	40-60세 미만	226(44.3)	284(55.7)	510(100.0)	
	60세 이상	60(30.0)	140(70.0)	200(100.0)	
학력	초졸 이하	12(40.0)	18(60.0)	30(100.0)	3.603
	중졸	44(45.4)	53(54.6)	97(100.0)	
	고졸	158(40.0)	237(60.0)	395(100.0)	
	대졸	237(45.0)	290(55.0)	527(100.0)	
	대학원 졸업 이상	26(50.0)	26(50.0)	52(100.0)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34(40.5)	50(59.5)	84(100.0)	2.012
	150-300만원 미만	93(40.8)	135(59.2)	228(100.0)	
	300-450만원 미만	163(44.2)	206(55.8)	369(100.0)	
	450만원 이상	97(38.6)	154(61.4)	25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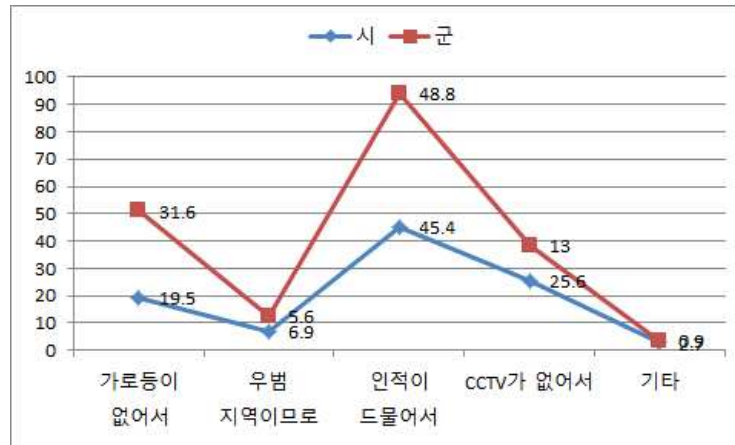
직업	농업, 어업, 임업	52(44.4)	65(55.6)	117(100.0)	23.107*
	자영업	52(38.5)	83(61.5)	135(100.0)	
	판매/서비스	24(45.3)	29(54.7)	53(100.0)	
	기능/숙련공	5(33.3)	10(66.7)	15(100.0)	
	일반작업직	14(41.2)	20(58.8)	34(100.0)	
	사무/기술직	103(44.6)	128(55.4)	231(100.0)	
	경영/관리직	11(61.1)	7(38.9)	18(100.0)	
	전문/자유직	17(43.6)	22(56.4)	39(100.0)	
	가정주부	63(39.1)	98(60.9)	161(100.0)	
	학생	102(52.8)	91(47.2)	193(100.0)	
	무직	21(26.3)	59(73.8)	80(100.0)	
	기타	13(52.0)	12(48.0)	25(100.0)	
지역	시	262(43.2)	344(56.8)	606(100.0)	.004
	군	215(43.4)	280(56.6)	495(100.0)	
합계		477(43.3)	624(56.7)	1101(100.0)	

야간에 집 근처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477명을 분석한 결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인적이 드물어서’ 47.0%, ‘가로등이 없어서’ 24.9%, ‘CCTV가 없어서’ 19.9%, ‘우범 지역이므로’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안전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야간 집근처에서 혼자 걸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가로등이 없어서		119	24.9
우범 지역이므로		30	6.3
인적이 드물어서		224	47.0
CCTV가 없어서		95	19.9
기타		9	1.9
합계		477	100.0

구분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전체	χ ²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 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CCTV가 없어서	기타		
지역	시	51(19.5)	18(6.9)	119(45.4)	67(25.6)	7(2.7)	262(100.0)	18.844**
	군	68(31.6)	12(5.6)	105(48.8)	28(13.0)	2(0.9)	215(100.0)	
전체		119(24.9)	30(6.3)	224(47.0)	95(19.9)	9(1.9)	477(100.0)	



<그림7> 집 주변에 밤에 혼자 걸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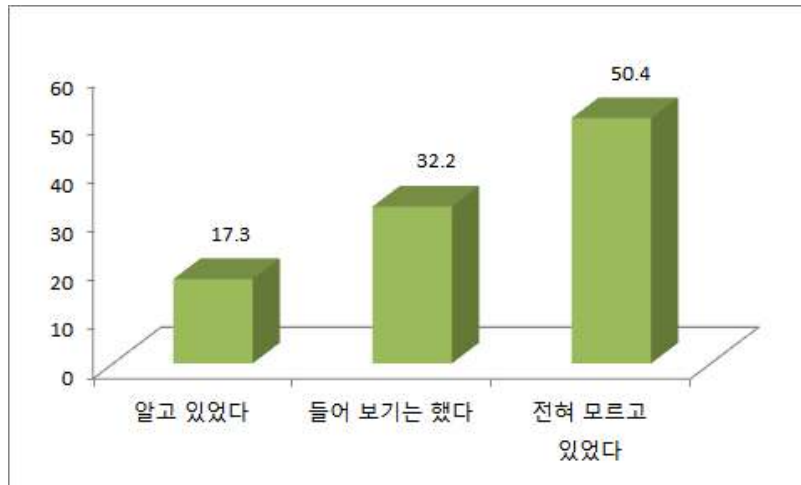
제 4 절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안녕 리액션(Re-Action) 캠페인에 대한 인식

1. 안녕 리액션 (Re-Action) 캠페인 인지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이 안녕 리액션 캠페인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 50.4%, ‘들어 보기는 했다’ 32.2%, ‘알고 있었다’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략 반수(49.5%)는 알고 있고, 나머지 반수(50.4%)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캠페인이 시작된 지 1년여 밖에 안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간 적극적으로 홍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4> 안녕 리액션 캠페인 인지도

안녕 리액션 캠페인 인지도	빈도	퍼센트
알고 있었다	191	17.3
들어 보기는 했다	355	32.2
전혀 모르고 있었다	555	50.4
합계	1101	100.0



[그림8] 안녕 리액션 캠페인 인지도

<표25> 집단별 안녕 리액션 캠페인 인지도

구분		안녕 리액션 캠페인 인지도			계	χ ²
		알고 있었다	들어보기는 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성별	남자	58(18.0)	108(33.5)	156(48.4)	322(100.0)	.701
	여자	133(17.1)	247(31.7)	399(51.2)	779(100.0)	
연령	20세 미만	11(9.5)	38(32.8)	67(57.8)	116(100.0)	40.970***
	20-40세 미만	39(14.2)	69(25.1)	167(60.7)	275(100.0)	
	40-60세 미만	109(21.4)	156(30.6)	245(48.0)	510(100.0)	
	60세 이상	32(16.0)	92(46.0)	76(38.0)	200(100.0)	
학력	초졸 이하	5(16.7)	11(36.7)	14(46.7)	30(100.0)	24.793**
	중졸	18(18.6)	38(39.2)	41(42.3)	97(100.0)	
	고졸	45(11.4)	143(36.2)	207(52.4)	395(100.0)	
	대졸	108(20.5)	153(29.0)	266(50.5)	527(100.0)	
	대학원 졸 이상	15(28.8)	10(19.2)	27(51.9)	52(100.0)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7(8.3)	29(34.5)	48(57.1)	84(100.0)	12.041
	150-300만원 미만	46(20.2)	73(32.0)	109(47.8)	228(100.0)	
	300-450만원 미만	63(17.1)	136(36.9)	170(46.1)	369(100.0)	
	450만원 이상	55(21.9)	72(28.7)	124(49.4)	251(100.0)	
직업	농업, 어업, 임업	20(17.1)	49(41.9)	48(41.0)	117(100.0)	57.494***
	자영업	21(15.6)	60(44.4)	54(40.0)	135(100.0)	
	판매/서비스	12(22.6)	15(28.3)	26(49.1)	53(100.0)	
	기능/숙련공	2(13.3)	7(46.7)	6(40.0)	15(100.0)	
	일반작업직	8(23.5)	8(23.5)	18(52.9)	34(100.0)	
	사무/기술직	58(25.1)	57(24.7)	116(50.2)	231(100.0)	

	경영/관리직	4(22.2)	3(16.7)	11(61.1)	18(100.0)	
	전문/자유직	10(25.6)	14(35.9)	15(38.5)	39(100.0)	
	가정주부	23(14.3)	54(33.5)	84(52.2)	161(100.0)	
	학생	19(9.8)	52(26.9)	122(63.2)	193(100.0)	
	무직	10(12.5)	32(40.0)	38(47.5)	80(100.0)	
	기타	4(16.0)	4(16.0)	17(68.0)	25(100.0)	
거주 지역	시	110(18.2)	172(28.4)	324(53.5)	606(100.0)	9.231*
	군	81(16.4)	183(37.0)	231(46.7)	495(100.0)	
전체		191(17.3)	355(32.2)	555(50.4)	1101(100.0)	

2.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경험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안녕 리액션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24.0%,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76.0%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경험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경험	빈도	퍼센트
있다	264	24.0
없다	837	76.0
합계	1101	100.0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집단별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남성, 60세 이상의 집단, 중졸, 450만원 이상, 농업/어업/임업의 집단에서 안녕 리액션 캠페인 참여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7> 집단별 안녕 리액션 참여경험 비교

구분		리액션 참여경험		합계	카이제곱
		있다	없다		
성별	남자	83(25.8)	239(74.2)	322(100.0)	.807
	여자	181(23.2)	598(76.8)	779(100.0)	
연령	20세미만	27(23.3)	89(76.7)	116(100.0)	14.959**

	20-40세미만	43(15.6)	232(84.4)	275(100.0)	
	40-60세미만	138(27.1)	372(72.9)	510(100.0)	
	60세이상	56(28.0)	144(72.0)	200(100.0)	
학력	초졸 이하	8(26.7)	22(73.3)	30(100.0)	17.384**
	중졸	38(39.2)	59(60.8)	97(100.0)	
	고졸	82(20.8)	313(79.2)	395(100.0)	
	대졸	119(22.6)	408(77.4)	527(100.0)	
	대학원 졸 이상	17(32.7)	35(67.3)	52(100.0)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2(14.3)	72(85.7)	84(100.0)	6.079
	150-300만원 미만	59(25.9)	169(74.1)	228(100.0)	
	300-450만원 미만	92(24.9)	277(75.1)	369(100.0)	
	450만원 이상	69(27.5)	182(72.5)	251(100.0)	
직업	농업, 어업, 임업	38(32.5)	79(67.5)	117(100.0)	14.479
	자영업	27(20.0)	108(80.0)	135(100.0)	
	판매/서비스	13(24.5)	40(75.5)	53(100.0)	
	기능/숙련공	3(20.0)	12(80.0)	15(100.0)	
	일반작업직	11(32.4)	23(67.6)	34(100.0)	
	사무/기술직	63(27.3)	168(72.7)	231(100.0)	
	경영/관리직	4(22.2)	14(77.8)	18(100.0)	
	전문/자유직	12(30.8)	27(69.2)	39(100.0)	
	가정주부	36(22.4)	125(77.6)	161(100.0)	
	학생	34(17.6)	159(82.4)	193(100.0)	
	무직	18(22.5)	62(77.5)	80(100.0)	
	기타	5(20.0)	20(80.0)	25(100.0)	
거주 지역	시	124(20.5)	482(79.5)	606(100.0)	9.142**
	군	140(28.3)	355(71.7)	495(100.0)	
전체		264(24.0)	837(76.0)	1101(100.0)	

3. 안녕 리액션 캠페인 목적 인식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목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안부, 안전, 안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캠페인’ 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안녕이라고 말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캠페인’ 이라고 인식한 응답자가 26.5%, ‘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캠페인 ’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대한 인식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8> 안녕리액션 캠페인 목적에 대한 인식

안녕 리액션 캠페인 목적	빈도	퍼센트
'안녕'이라고 말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캠페인	292	26.5
미세먼지, 지진, 혐오범죄 등 전에 없던 위협에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90	8.2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캠페인	200	18.2
안부, 안전, 안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캠페인	499	45.3
기타	20	1.8
합계	1101	100.0

4. 안녕 리액션 필요도 및 참여의향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안녕 리액션 캠페인(Re-Action)의 필요도 및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필요도는 10점 만점 중 7.4(2.0)점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참여의향은 10점 만점 중 7.2(2.1)점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필요도 및 참여의향을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남성, 60세 이상, 중졸 학력, 450만원 이상 고소득, 전문/자유직에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필요도 및 참여의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29> 집단별 안녕 리액션 필요도 및 참여의향

구분		필요도			참여의향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7.43	2.010	.748	7.28	2.070	.648
	여자	7.33	1.945		7.19	2.119	
연령	20세 미만 ^a	7.20	2.048	7.013*** b<c,d	7.11	1.977	8.938*** b<c,d
	20-40세 미만 ^b	6.93	1.963		6.68	2.173	
	40-60세 미만 ^c	7.54	1.993		7.44	2.080	
	60세 이상 ^d	7.59	1.740		7.44	2.014	
학력	초졸 이하	7.23	1.612	.383	7.00	1.875	1.888
	중졸	7.59	1.743		7.66	2.015	
	고졸	7.34	1.976		7.16	2.114	
	대졸	7.34	2.027		7.15	2.124	
	대학원 졸 이상	7.33	1.823		7.63	2.029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7.02	1.693	2.181	7.10	1.961	2.130
	150-300만원 미만	7.33	2.082		7.10	2.279	
	300-450만원 미만	7.50	1.959		7.23	2.123	

	450만원 이상	7.59	1.776		7.55	2.008	
직업	농업, 어업, 임업	7.55	1.941	2.672**	7.41	2.404	1.142
	자영업	7.53	1.915		7.37	2.150	
	판매/서비스	6.68	2.243		6.77	2.318	
	기능/숙련공	7.47	2.532		7.53	2.475	
	일반작업직	7.76	1.707		7.21	2.371	
	사무/기술직	7.20	1.994		7.04	2.060	
	경영/관리직	7.50	2.149		7.28	1.904	
	전문/자유직	7.77	2.032		7.62	2.243	
	가정주부	7.81	1.759		7.39	2.098	
	학생	7.16	1.930		6.98	1.872	
	무직	7.10	1.926		7.49	1.916	
	기타	6.60	2.041		6.96	1.791	
거주 지역	시	7.17	1.931	-3.517 ***	7.02	2.088	-3.471***
	군	7.59	1.981		7.46	2.099	
전체		7.36	1.964		7.22	2.104	

5. 안녕 리액션 캠페인 주요 대상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주요대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질문하였다. 3개의 선택지까지 고를 수 있도록 한 뒤,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단순 합하여 합계를 낸 결과는 아래 표의 오른쪽 칼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결과 캠페인의 주요대상으로 노인 20.5%, 청소년 18.5%, 아동 15.0%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은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주요 대상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청년, 여성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0>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주요 대상

리액션 캠페인 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영유아	90	8.2	32	3.1	33	3.5	155	5.0
아동	214	19.4	155	14.9	94	10.0	463	15.0
청소년	252	22.9	211	20.3	108	11.5	571	18.5
청년	56	5.1	87	8.4	77	8.2	220	7.1
노인	277	25.2	182	17.6	172	18.3	631	20.5
장애인	88	8.0	165	15.9	111	11.8	364	11.8
한부모 가정	43	3.9	69	6.7	83	8.8	195	6.3
다문화	14	1.3	56	5.4	89	9.4	159	5.2
여성	41	3.7	61	5.9	111	11.8	213	6.9
자연	26	2.4	19	1.8	64	6.8	109	3.5
합계	1101	100.0	1037	100.0	942	100.0	3080	100.0

6. 리액션 캠페인 주요 문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주요 주제나 문제로 중요시 여기는 생각을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뒤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단순히 더해서 그 합계를 구한 결과는 아래 표의 오른쪽 칼럼과 같다. 합계의 순위를 보면, 환경 19.6%, 빈곤 15.0%, 인권 14.8%, 교육 12.0%, 폭력 11.9%, 공동체의식의 쇠퇴 9.5%, 평화 5.9% 등의 순이었다.

<표31>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주요 문제

리액션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곤	265	24.1	109	11.6	71	7.7	445	15.0
환경	290	26.3	184	19.6	107	11.6	581	19.6
교육	113	10.3	132	14.0	112	12.1	357	12.0
재난	25	2.3	107	11.4	89	9.6	221	7.4
폭력	108	9.8	101	10.7	143	15.5	352	11.9
여가	15	1.4	26	2.8	55	5.9	96	3.2
공동체	102	9.3	93	9.9	87	9.4	282	9.5
인권	143	13.0	136	14.5	161	17.4	440	14.8
평화	29	2.6	51	5.4	94	10.2	174	5.9
기타	11	1.0	2	.2	6	.6	19	0.6
합계	1101	100.0	941	100.0	925	100.0	2967	100.0

7. 지역사회 심각한 문제

살고 계시는 동네에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영역들에 대하여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도록 한 뒤 이를 단순히 합산한 합계는 아래 표의 오른쪽 칼럼과 같다.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합계 순위를 보면, ‘환경오염 문제’ 16.7%,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문제’ 14.0%, ‘이기주의 만연, 공동체의식 약화, 이웃사랑 약화 등 소외문제’ 13.6%,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안전 문제’ 12.2%, ‘노인문제’ 11.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2> 지역사회 심각한 문제

동네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빈도 (명)	퍼센트 (%)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안전 문제	181	16.4	90	9.3	97	10.3	368	12.2
노인문제	150	13.6	105	10.9	75	7.9	330	11.0
범죄나 청소년비행 문제	80	7.3	88	9.1	107	11.3	275	9.1
환경오염 문제	242	22.0	171	17.7	89	9.4	502	16.7
건강 혹은 위생 문제	73	6.6	112	11.6	78	8.3	263	8.7
재해재난 문제	20	1.8	34	3.5	53	5.6	107	3.6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문제	122	11.1	160	16.6	141	14.9	423	14.0
조직폭력, 갈취, 협박 등 폭력문제	12	1.1	17	1.8	16	1.7	45	1.5
빈곤, 빈부격차 문제	75	6.8	85	8.8	119	12.6	279	9.3
공동체의식 약화, 소외문제	140	12.7	103	10.7	167	17.7	410	13.6
기타	6	.5	1	.1	3	.3	10	0.3
합계	1101	100.0	966	100.0	945	100.0	3012	100.0

8.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영역

자원봉사자로서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여 개선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영역들을 3개 고르도록 한 뒤 이를 단순히 더한 합계는 다음 표의 오른쪽 칼럼과 같다. 합계의 순위를 보면,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 문제’ 18.5%, ‘환경오염 문제’ 15.7%, ‘이기주의 만연, 공동체의식 약화, 이웃사랑 약화 등 소외문제’ 12.7%, ‘범죄나 청소년 비행 문제’ 11.3%, ‘노인문제’ 10.0%,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안전문제’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3>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영역

해결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안전 문제	138	12.5	64	6.9	81	9.0	283	9.7
노인문제	115	10.4	101	10.9	78	8.7	294	10.0
범죄나 청소년비행 문제	133	12.1	90	9.7	107	11.9	330	11.3
환경오염 문제	238	21.6	139	15.0	83	9.2	460	15.7
건강 혹은 위생 문제	61	5.5	97	10.4	73	8.1	231	7.9
재해재난 문제	25	2.3	48	5.2	51	5.7	124	4.2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문제	192	17.4	205	22.1	144	16.0	541	18.5
조직폭력, 갈취, 협박 등 폭력문제	6	.5	15	1.6	21	2.3	42	1.4
빈곤, 빈부격차 문제	71	6.4	82	8.8	96	10.7	249	8.5
공동체의식 약화, 소외문제	121	11.0	88	9.5	162	18.0	371	12.7
기타	1	.1	-	-	3	.3	4	0.1
합계	1101	100.0	929	100.0	899	100.0	2929	100.0

9. 안녕 리액션 캠페인 지속의지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참여여부를 막론하고, 향후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대한 의지들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4개의 질문을 더하여 그 평균을 계산한 결과 3.70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보통이다(3점)’에서 ‘그런 편이다(4점)’ 사이에서 약간 ‘그런 편이다(4점)’에 기운 것을 알 수 있다.

<표34> 안녕 리액션 캠페인 지속의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보통 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5)	M (SD)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안녕 리액션(Re-Action) 캠페인’ 자원봉사활동에 <u>지속적으로</u> 참여하고 싶다.	10 (.9)	55 (5.0)	431 (39.1)	415 (37.7)	190 (17.3)	3.65 (.852)
앞으로 ‘안녕 리액션(Re-Action) 캠페인’ 자원봉사활동에 좀 더 <u>더 적극적으로</u> 참여할 생각이다.	7 (.6)	54 (4.9)	437 (39.7)	419 (38.1)	184 (16.7)	3.65 (.835)
‘안녕 리액션(Re-Action) 캠페인’ 자원봉사활동이 <u>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u> 이라고 생각한다.	3 (.3)	39 (3.5)	350 (31.8)	452 (41.1)	255 (23.2)	3.83 (.831)
기회가 된다면 ‘안녕 리액션(Re-Action)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에 <u>더 많은</u>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 있다.	7 (.6)	52 (4.7)	442 (40.1)	408 (37.1)	192 (17.4)	3.60 (.841)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대한 의지들을 집단별로 비교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집단비교는 우선 연령에서 20-40대 미만의 의지가 40세 이상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고, 직업 측면에서는 사무기술직의 의지가 가정주부나 기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 집단별 안녕 리액션 캠페인 지속의지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7096	.75834	.267
	여자	3.6961	.78397	
연령	20세 미만 ^a	3.6832	.81451	6.102*** b<c,d
	20-40세 미만 ^b	3.5409	.72331	
	40-60세 미만 ^c	3.7417	.76583	
	60세 이상 ^d	3.8225	.81984	
학력	초졸 이하	3.6833	.76826	1.039
	중졸	3.8428	.69440	
	고졸	3.6665	.81942	
	대졸	3.6964	.76341	
	대학원 졸 이상	3.7356	.71128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a	3.7857	.72721	.261
	150-300만원 미만 ^b	3.7032	.78459	
	300-450만원 미만 ^c	3.7091	.75814	
	450만원 이상 ^d	3.7241	.81322	
직업	농업, 어업, 임업 ^a	3.8355	.80486	2.961** f< i, l
	자영업 ^b	3.7148	.71899	
	판매/서비스 ^c	3.5896	.88943	
	기능/숙련공 ^d	3.8000	.94112	
	일반작업직 ^e	3.7868	.90690	
	사무/기술직 ^f	3.5866	.70832	
	경영/관리직 ^g	4.0694	.87366	
	전문/자유직 ^h	3.6282	.80064	
	가정주부 ⁱ	3.8722	.77577	
	학생 ^j	3.6464	.75881	
	무직 ^k	3.6979	.76323	
	기타 ^l	3.2500	.73243	
거주 지역	시	3.6751	.78311	-1.185
	군	3.7306	.76744	
전체		3.7000	.77624	

제5절 종합논의

이상의 조사결과 가운데 안녕 리액션 캠페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발견사항들을 요약한 후, 그 함의를 정리해보자. 우선 조사대상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이 체감하는 안녕(삶의 만족도)은 7점 만점에 4.9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중간(4점)을 조금 넘어서 ‘약간 만족하는 정도’ (약간 그렇다 5점)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전라북도민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여유롭거나 나은 집단이라는 점을 가정할 때, 이러한 삶의 만족도 수준은 다소 의외이다.

조사대상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 으로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등)’ 18.2%, ‘국가안보(전쟁, 테러, 북핵 문제 등)’ 13.9%, ‘범죄 발생(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13.8%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13.2%,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10.4% 등을 꼽았다. 조사시점이 2019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미세먼지, 북핵문제, 잔혹한 범죄 뉴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공직자들의 도덕성 논란 등이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실생활에서 고통을 많이 느낀 문제(대표적으로 미세먼지)와 언론에 의해 의제로 형성된 문제(북핵 등의 문제들)들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요인들을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집근처에 밤에 귀하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 이다. 이 문항에 대해 43.3%의 응답자들이 ‘있다’ 고 답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대체로 활동적인 시민들이라고 할 때, 전체 시민들을 두고 질문하면 ‘있다’ 는 응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성(47.1%)이 남성(34.2%)보다 있다는 응답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에서는 뜻밖에도 20세 미만 응답자(52.6%) 집단이 60세 이상 노인집단(30.0%)보다 훨씬 밤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집근처에 밤에 귀하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에 ‘있다’ 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인적이 드물어서(47.0%)’, ‘가로등이 없어서(24.9%)’, ‘CCTV가 없어서(19.9%)’, ‘우범지역이므로(6.3%)’ 등으로 나타나, 가로등과 CCTV 와 같은 방범시설의 부재가 주요 두려움의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방범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우범지대 해소책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대해서 조사대상 전북 자원봉사자 가운데 대략 절반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알고 있었다’ 17.3%, ‘들어보기는 했다’ 32.2% 합계 49.5%).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대한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첫째, 이 캠페인이 작년(2018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둘째, 그간 충분히 교육되거나 홍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셋째, 기존 자원봉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까닭에 무엇인가 관심을 끌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이나 상황을 조성하지 못했던 데에 기인한다고 본다. 실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공식 홈페이지(<http://v-reaction.net/>)를 접속해 보아도, 많은 방문자를 유인할 만한 최신의, 흥미롭고 의미있는, 그러면서도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홈페이지가 설계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방문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홈페이지 외에도 요즘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NS 상에서도 안녕 리액션은 미미한 반향을 보일 뿐이다. 페이스북에서 ‘안녕 리액션’을 검색해보면, 수개월 전의 포스팅들이 덩성 덩성 등장한다.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SNS 환경에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방문자를 기다리는 이전시대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0%로 나타났다. 위의 인지도와 결부시켜 논의해보면, 조사대상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의 대략 반절은 이 캠페인을 알지만(그것도 32.2%는 들어보기는 한 수준), 그들 중의 절반 정도만이 참여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딸린 영어사전에서 찾아본 캠페인 campaign의 사전적 의미에는 ‘(조직적인) 운동, 《특히》 사회 운동; 찬성 운동 《for》, 반대 운동 《against》’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캠페인에는 선거운동이나 대대적인 군사행동의 의미도 담겨있다. 대중의 관심과 참여열기를 수렴하여, 이를 무엇인가의 변화를 위한 거대한 에너지로 투입하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할 때,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운동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참신한 변모를 모색한다고 할 때,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의 조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목적, 대상 및 방법 측면에서의 이론적 정교화와 함께, 실천적 참신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는 해도, 조사대상 자원봉사자들조차 절반이 그 존재를 모르고, 3/4은 참여한 적이 없는 이 ‘캠페인’은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안녕 리액션 캠페인’ 홈페이지에 소개된 것처럼, 10개의 타겟과 9+ 알파의 아젠다는 기존 자원봉사 프로그램들과 중첩된다. 이럴 경우, ‘자원봉사’를 ‘안녕 리액션’으로 개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라는 좋은 이름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전북지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보듯,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문제영역 가운데 상위순서에 올라와 있는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문제’, ‘환경오염문제’, ‘이기주의만연, 공동체의식의 약화, 소외문제’ 등의 문제영역에 집중하는 것도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다른 한편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주요대상으로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들이 우선 생각하는 주요 대상이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등인 것을 고려할 때, 사회적 취약인구집단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과학적인 우선순위 책정 방법일 것이다. 이 캠페인의 대상을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사람들, 고립된 지역이나 환경에 처한 사람들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그들에게 ‘안부전화’, ‘방문’, ‘동행’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들에

한정하여 캠페인을 펼치는 식으로, 목적과 대상과 방법에서 특화된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고령사회의 증가하는 독인가구나 취약가구의 문제(고독사가 대표적이다)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

둘째, ‘안녕 리액션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캠페인’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녕 리액션 캠페인’을 바라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홍보와 교육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자원봉사 전문가들이나 조직들에 의해 ‘아름다운 미담’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하고자 할 만큼 그 목적이나 필요성, 또 그 의미가 크다고 한다면, 요란스럽고 충격적인(좋은 의미에서) 방식으로 이 캠페인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의 활용, 성공사례의 확산, 이론적 정교화, 학교와 직장과 지역 차원에서의 조직화, 핵심 요원(자원봉사관리자)의 발굴과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캠페인은 최근의 사회변화에 조용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의 전략들과 합체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각종 사회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사회에서는 포용 복지,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사례관리, 맞춤형복지 등이 주요한 화두로, 그리고 정책 아젠다로 떠올랐다. 이러한 아젠다들은 ‘안녕 리액션 캠페인’과 매우 잘 어울릴 수 있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반면, 이들 아젠다는 거시적인 정책과 제도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될 뿐 구체적인 실천 맥락에서는 종종 공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포용복지, 탈시설화, 커뮤니티 케어, 사례관리, 맞춤형복지 등등은 공공조직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여지가 매우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안녕 리액션 캠페인’이 표방하고 있는 안부, 안전, 안심이라는 목적(goals)은 이들 영역의 목적들과 매우 친화적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인 면에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그 생경한 이름처럼 아직은 설익은 상태이다. 3개 단어 가운데 2개 단어가 외래어라는 점에서, 이 캠페인은 외래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세대에게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고령세대는 이 캠페인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단어들을 발음하기도 힘들어할 것이다). 보다 친숙한 우리말로 이 캠페인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단한 이론적 기초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대 한국인의 삶에는 어떤 소외(↔ 안부)와 위협(↔ 안전)과 불안(↔ 안심)이 도사리고 있는가? 이들 소외와 위협과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들에 집중하여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가? 이러한 일들은 정부나 시장이 나서면 모두 가능한가?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납세자나 소비자, 혹은 방관자로서만 머물러야 하나? 이 과정에 시민참여, 풀뿌리민주주의, 자원주의(voluntarism)가 설 땅은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mission)을 갖고,

어떤 전망(vision)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목적(goals) 삼아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objectives) 달성을 염두에 두고, 시민 자원봉사 역량을 조직화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깊은 논의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비유컨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충분히 준비하여 단단한 기초를 세워놓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이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reaction)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토 론 1 》

강력한 운동성을 가진 안녕 리액션 캠페인

박상희(광산구자원봉사센터 소장)

1. 자원봉사 환경의 변화

최근 자원봉사 참여율이 21.4%(2017 행정안전부) 초반대 정체중으로 좀처럼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경제 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시간적 여유 부족, 의무적 자원봉사 참여로 피로감 등이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를 가로막는 외적 요인이라면 자원봉사 지원조직의 변화와 혁신 부족 그리고 내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오는 내적 요인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자원봉사 참여 동기를 사회문제 해결 77.7%(2017 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두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실제 활동분야는 일손 돕기 55.5%로 나타나 참여 동기와 실제 활동분야 간 괴리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의 패러다임을 읽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관리자의 역량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오는 원인일 수도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활동과제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양적인 성장을 이루기 쉽지 않다. 활동 과제의 기획에서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양적인 성과 측정에 치중되어 있던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방식이 사회적 임팩트를 높이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성과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과정지표로 자원봉사자의 주도적 참여,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방식의 혁신성 등이 자원봉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결과지표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 후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변화와 확산성은 사회적 임팩

트의 핵심성과이다.

자원봉사의 시대적 흐름은 시혜적 서비스제공에서 문제해결중심으로, 시설(공간)중심에서 생활권(마을)중심으로, 노력봉사에서 재능봉사로, 직접사업 중심에서 지원·협력 중심으로 양적성장 추구에서 질적 성장 추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자원봉사는 활동의 전 과정에서 지역과 이웃을 만나는 과정중심 활동이며 유능한 관리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맞서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일, 양보 할 수 없는 관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2. 안녕, 광산

2018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에서 전국자원봉사 공동행동 안녕 리액션은 센터의 존재이유를 잘 드러내고 센터의 확장과 위상을 높이는 활동전략이며 센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홍보의 가장 좋은 매개 활동이라 하였다. 안녕 리액션은 안부를 챙기고 안전을 지키는 행동을 할 때 안심한 사회로 성장한다.

전국 공동행동 안녕 리액션은 안전한 삶에 대한 전국민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다. 불안, 불만, 불신의 사회 분위기를 안전한 사회, 안부를 묻는 사회, 이웃이 있어 안심한 사회로 이행 하자는 것이 일상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와 행동양식을 갖자는 것이다.

초기 안녕 리액션 캠페인 실천 활동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사, 관련 미디어와 공동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일, 자원봉사센터가 주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관련 기관들의 주도적인 기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키는 아래로부터의 캠페인을 기본틀로 하며, 참여를 촉진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시민들의 주도적 활동을 위한 자원과 홍보수단을 지원하는데 집중하며, 지역별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센터의 안녕 리액션 활동 주제는 “안녕, 광산!”이며, 모든 활동의 영역을 이웃의 안부를 묻는 광산, 내 삶이 안전한 광산, 이웃이 있어 안심하는 광산으로 정렬하였다.

첫째, 이웃의 안부를 묻는 광산은 ‘고독사 예방, 사랑 잇는 전화’,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따뜻한 한끼, 빨간냄비 프로젝트’, ‘전국민 응원, 격한 파이팅 프로젝트(안녕처방전 발급)’, ‘아파트 내, 출근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먼저 인사해요’, ‘마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소통방 운영’, 둘째, 내 삶이 안전한 광산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노란 발자국’, ‘밤길 안전 지킴이 태양광 안심 보행 등’,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스몸비 예방캠페인’, ‘밤길 안전을 지키는 Safe-zone 설치’, ‘재난재해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셋째, 이웃이 있어 안심하는 광산은 ‘SDGs 이행을 위한 단체연합 V-day 활동’, ‘이웃의 안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활동’, ‘마을분쟁을 해결하는 마을소통방’, ‘맘편한 광산 커뮤니티 맵핑데이’로 영역을 구분하여 안녕 리액션 활동을 진행하였다.

3. 전북센터의 안녕 리액션 캠페인

전북센터의 자원봉사자 1인당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전국 평균 35.2시간보다 두배가 넘는 84시간으로 나타나 자원봉사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본다.

단, 1년간 총 봉사시간 2,300은 1년 365일로 나누어 보더라도 매일 6.3시간씩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자원봉사가 직업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자원봉사 참여(12.3%)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제보다 생계 곤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저소득층의 자원봉사 퇴장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에서 월 평균 봉사횟수, 1회 평균 봉사시간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의 문항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7.6%)이 1순위로 나타나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영역은 전통적인 자원봉사 영역인 사회복지 및 사회취약계층 등으로 자원봉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추후 사회 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동의 한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인정과 보상 질문에 식사 및 간식(24.7%), 작업복(12.0%) 순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비물질적(자원봉사보험, 봉사증서) 인정보상을 공식 인정 보상이라 한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

여시키기, 자원봉사자 가족에 대해 질문하기, 자원봉사활동 이외의 개인적 생활에 관심 보이기,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게 하기, 자원봉사자 가족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더 책임있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추천하기 등의 비공식 인정정보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녕 리액션 캠페인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략 반수(49.5%)는 알고 있고, 나머지 반수(50.4%)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캠페인이 시작된 지 1년여 밖에 안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간 적극적으로 홍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일 수도 있겠지만 안녕 리액션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과정이 없었고 활동의 성과를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캠페인의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라 본다. 우리 센터의 경우 ‘안녕, 광산!’의 단위 사업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만나고 있을 뿐 단위 사업이 안녕 리액션 캠페인임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지는 않는다.

4. 강력한 운동성을 가진 안녕 리액션 캠페인

한국자원봉사의 해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과제(교육역량혁신,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빈곤예방 및 해결, 여가문화, 환경, 마을공동체 강화, 고령화 사회 극복, 인권·다문화·생명존중, 평화통일, 직접 선정주제),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 SRGs(Social Relation Recovery Goals: 사회적 관계회복 목표)는 안녕 리액션 캠페인의 과제를 찾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소외, 위험, 불안의 사회를 안부, 안전, 안심의 사회로 전환하는 높은 수준의 운동성을 가져야 한다. 피켓 들고 전단 나눠주고 구호 외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없다. 잘 짜여진 판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닌 활동의 주도성을 자원봉사자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이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자원봉사자의 주체적 참여는 늘어나고 시민성은 확장되어질 것이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는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공동체적 질서가 없으며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위험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 하는데 초점을 맞춘 강력한 운동성을 가진 안녕 리액션 캠페인이 전개 되어야 한다.

《 토 론 2 》

‘마을’ 과 ‘공동체’ 란 단어가 익숙해져가는 즈음 만남 ‘안녕 Re:action’(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김소라(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2004년 지역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의 마을공동체 활동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왜 ‘안녕 Re:action’(세상을 잇는 자원봉사)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소위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흐름 속에서 위와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쉽 없이 그리고 직선처럼 곧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멈추지 않는 삶이다 보니 자기 외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없고 굽이굽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자로 잰 듯 직선처럼 살다보니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도 부족함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저는 안녕 Re:action 캠페인에 대해 말하기 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안녕한가?

이것은 안녕 Re:action 캠페인이 단순히 누군가를 위한, 이타심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 중의 하나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경제활동이 쉽지 않고, 점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어지는 시점에 나 자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물음을 통해 안녕 Re:action 캠페인은 누군가를 위한 사업이 아닌 ‘나’ 에게도 필요한 캠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제일선에서 이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는 실무자의 인식이 우선이 되어야 안녕 Re:action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부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안녕 Re:action 캠페인은 이전 방식의 대상자를 위한 시혜·수혜성 활동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기획·진행이라는 주민주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활동입니다.

주민이 기획·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의 결정 권한을 주민에게 오롯이 내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센터 실무자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란 점입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안녕 Re:action 캠페인의 성공여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 주도성이 담보되지 않는 안녕 Re:action 캠페인은 단순히 홍보성 사업으로만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연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는 마중물을 통해 등장한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 다양한 마을활동을 통해 성장한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은 충분히 그러한 역량이 발휘될 만큼 다양한 정보와 교육들을 제공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성장 속도들이 다르고, 중간지원조직들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안녕 Re:action 캠페인에서의 타겟과 아젠다들이 매우 다양한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기존의 사회복지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으로 주로 인식되어져 왔다면, 이제는 ‘서로 돌봄’, ‘사회적 가족이 되는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나 봉사자의 일 만이 아니라 행정, 유관기관, 기업을 비롯 궁극적으로는 주민, 시민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전, 안부, 안심 세 키워드로 볼 수 있는 안녕 Re:action 캠페인은 안녕하세요라는 안부 문기를 시작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안심과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자하는 실천 캠페인인 만큼 주민의 지속적인 삶의 활동으로서 그리고 향후 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토론

메 모 장

메 모 장

2019 자원봉사 다짐포럼

발 행 일	2019. 10
발 행 처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www.jbvollo.or.kr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
전 화	063) 227-1635
팩 스	063) 227-1364
디 자 인	우정인쇄



하나 된 열정, 자원봉사 땀박질

2019 자원봉사 다짐포럼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